



중국, 일용 유리제품 시장전망 밝아
유리포장 수요공업 발전, 포장물 수요 확대

일용 유리산업은 포장용기, 유리식기, 보온용기, 조명유리, 인조보석, 내화재료, 유리전용기계, 유리전용 몰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중국의 유리공업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으나 95년 일용 유리제품의 생산량이 663만t으로, 이 가운데 유리포장 용기가 610만t, 유리접시가 42만t, 기술유리가 11만t, 보온용기가 2억 9천개에 달했고, 95년 일용품 유리생산업체는 1,40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주요 생산기업으로는 廣東澳聯琉璃有限公司

上海澳聯琉璃有限公司, 福建蒲田金匙琉璃有限公司, 青島晶華琉璃廠, 上海保溫容器公司, 北京保溫瓶工業公司, 北京琉璃儀器廠, 山東中山市 璃建材集團有限公司 등이 있다.

일용 유리제품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와 한국, 태국, 대만 등과의 경쟁이 심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식음료공업, 화장품공업, 의약공업 등 유리포장 수요공업이 발전 중이고 포장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유리 포장용기의 소모량이 매년 1인당 5kg으로 40kg인 구미국가, 20~30kg인 일본, 한국의 소모량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맥주병의 경우 연 수요량이 1천만에 달하는



데 새 맥주병 생산량은 200만에 불과해 총수요의 1/5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고급 포장용기, 주방용 유리접시, 수정유리, 다채로운 조명 등 및 장식품 등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밖에 호텔, 사무실 등에서도 유리그릇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일용 유리산업의 발전목표로 상품구조조정, 품질제고, 에너지 소모량 절약, 관리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선진 설비, 기술과 관리방법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기술인력, 관리인력 양성과 국제시장 정보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포장비닐 제조용 PP 레진 찾아
코스타리카社, 수입선 전환 모색**

코스타리카 산호세 소재 Corporacion Inyco 사는 코스타리카내 슈퍼마켓용 포장비닐 제조용 PP레진 국내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Union Carbide, Dow Chemical사로부터 레진을 20년간 구매해 오고 있는데 가격이 미국업체들에 비해 저렴하고 또 오히려 가격이 일정 기간 변동이 없으면 수입을 한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연락처

- Corporacion Inyco S.A
- Apartado 216-1150 La Urca, San Jose, Costa Rica
- Tel : (506) 231-5044
- Fax : (506) 220-1656
- Contact : Mr. Mae Federico Zamora C.

**한국산 에틸렌 對日 수출 유력
염화비닐수지 경쟁력 증대 목적**

상장회사인 카네가후치중(鐘淵)화학공업은 염화비닐수지 기초원료인 에틸렌의 일부를 해외에서 조달할 방침을 확정, 사내체제를 정비해 빠르면 연내에 수입을 개시할 예정에 있다.

카네가후치는 이미 효고현 소재 타카사공업소를 외양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개조한데 이어 11월에는 저장설비도 완성할 예정이다. 종래에는 에틸렌 전량을 국내에서 조달해왔으나 에틸렌 가격의 상승으로 염화비닐수지의 국내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조달, 확대함으로써 염화비닐수지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카네가후치공업은 자사의 타카사공업소의 서쪽안벽을 적재량 3,500t의 외양선이 기착할 수 있도록 개조했고 5천t 규모의 대형탱크가 신설되면 기존설비와 합쳐서 에틸렌 9천t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한 총 공사비는 약 20억엔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환율변동과 에틸렌의 국제가격 등을 감안해 국내의 조달비율을 조절해 갈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수입량과 수입대상업체는 확정해 두고 있지 않으나 한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국내의 염화비닐업계에서는 최초로 해외조달을 하게 되는 셈이 된다.

■ 연락처

- 東京本社 原料部 調達課



Tel : 81-3-5574-8010
Fax : 81-3-5574-8123

**광동성, 시멘트 포장 신규정 시행
이달부터 개별 포대 사용제한 등**

중국정부의 코팅처리되지 않은 PP백 포장재 사용금지 규정과 관련, 광동성은 지난 1일부터 건축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위해 '시멘트 포장관리 규정'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

이 규정은 신규, 확장, 개조되는 시멘트생산공장은 반드시 벌크포장(散裝)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공장 허가를 불허하며 건축시공 업체의 경우 공사입찰이나 수주 참여에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시멘트 사용총량이 500t 이상인 공사는 신규정 시행일로부터 벌크 시멘트, 상품화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포대 포장은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또한 교통, 에너지, 항구, 도시 건설 등 공공사업에도 1년 이내 전부 이로 대체토록 하고 만약 이러한 건설공사에 포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공허가증을 발부치 않기로 했다.

중국은 연속 11년간 시멘트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벌크포장 시멘트 비중은 선진국의 90% 수준에 비해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95년 포장포대시멘트 생산량은 3.88억t으로 소요된 포장비용만도 무려 155억 원에 달하고 있고 운송과정중 소모량도 벌크시멘트에 비해 1,740만t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는 포장포대 사용시 야기되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부실공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국내 8천여 개의 시멘트공장중 20만t 이상의 중대형 공장이 260개이고 고품질 시멘트 생산량이 6천만t에 불과한 취약한 생산구조의 개선도 도모하고 있다.

**방글라, 골판지시장 한국 최대 공급국
가격우위 싱가포르 등 경쟁국산 품질로 위협**

골판지는 주로 포장용 종이상자(Carton box) 제조를 위한 원자재로 사용되는데, 방글라데시는 주 수출품목인 봉제의류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수출품 포장을 위한 종이상자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몇년전까지만 해도 종이상자의 국내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상당량의 상자를 해외에서 수입했으나 최근에는 많은 박스 제조업체들이 새로 생겨나 국내생산이 수요를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종이상자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종이상자를 만드는 원재료인 골판지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의 수요 증가율은 연 1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재 방글라데시의 골판지 월 수요는 약 1만t에 달하나 국내생산은 2천t 정도에 불과해 총 수요의 80%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이 방글라데시의 골판지 주 공급국이기는 하나 약 2년전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주 경쟁국으로



등장해 우리업체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점차 잠식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 제품은 같은 두께이다 라도 종이의 강도가 우리나라산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주로 전문수입상인 인덴터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인덴터들에게 거래성사 후 커미션을 정확히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척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업체들은 거래성사 후 인덴터의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거나 에이전트를 두고 다른 수입상을 통해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들어 현지 전문 인덴터들이 한국업체보다도 경쟁국 제품의 마케팅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한국업체들의 이러한 비신사적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전문 수입상들 중 한국업체와의 거래를 꺼리는 업체들도 많은데, 이것 또한 한국제품의 시장상실의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수입상들의 의견이다.

● 수입실적 (단위:US\$ 천)

국별	94/95년	95/96년
한국	10,584	13,000
싱가포르	2,520	1,900
인도네시아	1,680	1,520
말레이시아	505	950
기타	1,512	1,710
총계	16,800	19,000

(자료: KOTRA 카라카스무역관 수입상 접촉 조사)

방글라데시는 전문수입상인 인덴터가 공급 물량을 조정하면서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이 경쟁국에 비해 다소 싸더라도 이들의 신뢰를 잃으면 마케팅이 힘들 정도로 인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골판지의 가격은 변동이 심해 매월 수입가격이 달라지는데 수입상들에 따르면 수입 골판지의 가격은 한국산이 아직까지 가장 저렴하다고 하며 한국과 여타 경쟁국 제품과는 t당 가격이 50~60달러정도나 차이가 난다고 한다. 최근의 한국산 골판지 수입가격은 t당 240~250달러인데 반해 주 경쟁국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산은 t당 290~310달러 정도로 한국산이 타 경쟁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단연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골판지 제조업체가 3~4개사로 생산량이 월 2천t 정도로 총 수요의 20%에 정도에 불과한데 이들이 공급하는 골판지의 표면처리는 수입품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한다. 또한 방글라데시 골판지 제조업체들은 기술력의 한계로 골판지 두께가 120GSM 이하인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115GSM, 112GSM 등의 제품은 수요전량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골판지는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관세는 45%이고, 이외 15%의 부가세와 2.5%의 AIT(Advance Income Tax), 2.5%의 ILF(Import License Fee)가 부과된다.

그러나 골판지는 주로 수출용 의류 포장박스 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출용 원자재로 간주돼 대부분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골판지는 주로 컨테이너 형태가 아닌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데, 수입상들에 따르면 우리업체들은 제품선적시 룰상에 제품의 두께를 표시하는 마크를 누락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표시하



는 경우가 있으며 선박표시 등 각종 표시를 L/C건조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세관 공무원들은 부패가 극심해 수입 물품통관시 사소한 트집이라고 잡아 뇌물을 챙기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제품선적이 L/C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돼 있으면 통관시 많은 시간소모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당한 뇌물을 주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입상이 현지에서 통관시 이러한 불필요한 노력이나 비용소모가 없이 물건을 신속히 통관토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가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특수상황을 이해하고 선적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또한 클레임 발생시는 회피하지 말고 신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좋으며 현지업체들의 인콰이어리에 대해 성실히 회신하는 것도 장기적인 마케팅을 위해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는데 중요하다. 골판지 수요자는 한정돼 있으나 공급업체는 많아 경쟁이 심한 만큼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능력있는 인텐터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것이 정확한 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 과다한 시간 및 비용 투여없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러시아, 자국어 상표 부착 규정
식료품 수입시장 새관짜기진출 상품 종류 제한

지난 5월1일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료품에 대한 러시아어 상표(설명서 첨부 또는 스티커의 형태로 부착도 가능)를 부착토록

하는 규정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의 식료품 수입시장에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서방업체들의 러시아 지사나 수입업체들은 새로운 상표부착 강제규정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서방의 대규모 식료품 수출업체들은 대러시아 수출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또한 수입업체들이 계약시 러시아어 상품정보의 부착을 계약조건으로 하나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계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반독점위원회에서는 상표를 붙임으로써 야기되는 추가상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유통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과 달리 이 식료품 상표규정은 식료품을 수입하는 업체나 개인 비즈니스맨이 러시아어로 씌어진 상표가 부착된 식료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

한 외국 식품업체에 따르면 1가지 상품의 포장장을 새로 만드는데 번역과 디자인 제작에 드는 비용이 약 1만5천달러로 연간 1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술병 등에 붙은 상표(라벨)는 디자인에 대한 어려움과 고유상품 이미지를 해치기 때문에 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작업을 통한 추가 스티커 작업의 경우 소요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프린트용 열스텝프기계 구입희망
페루업체, 프린트 성능 분당 150~170개

페루 리마에 소개하고 있는 Etiquetas Del



Pacifico사는 94년도에 설립된 자수 및 스탬프 라벨 수입판매 전문업체로서 주로 칠레로부터 제품을 수입해왔다.

그러나 칠레 공급업체의 상품 인도기일이 길어 영업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라벨 프린트용 열 스탬프 기계를 구매, 직접 생산키 위함이다.

이 회사는 페루의 최대 직물·의류 제조 및 상업지역인 가마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라벨제작용 열 스탬프(프린트) 기계 구입의 사양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직물, 종이, 폴리에스테르, 나이론 및 이와 유사한 재질의 테이프에 라벨(문양)이 프린트되는 기계여야 함.

▲ 프린트 재료로는 건성 잉크를 사용해야 하며, 라벨당 6가지의 컬러까지 조합할 수 있어야 함.

▲ 프린트 속도는 1분당 150~170개의 라벨을 찍을 수 있어야 하며, 라벨 사이즈는 12 × 12 mm에서 50 × 120mm 범위이어야 함.

관심업체는 페루업체로 직접 접촉하거나 KOTRA 리마 한국무역관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대 중국 골심지 수출전망 밝다
수출용 포장박스 수요급증, 수입제한조치 없어

중국 四川省은 저장도의 중저가 골판지박스 제조용 골심지는 자국산 제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수출용 고강도 골판지박스 제조용 골심지는 외국산을 수입해 생산하고 있다.

최근 사천지역의 경기 호조로 인한 수출용 포장박스의 수요 증가로 골심지의 수입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산 제품은 홍보, 시장개척 등의 노력으로 골심지의 실수요업체인 골판지박스 제조업체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95년 중국의 골심지, 골판지는 수출 6만 6,400t, 수입이 42만7,400t에 달했으며 현지 업체에 따르면 사천지역의 연간 총수요는 4천만~5천만달러 정도로 이중 수입수요가 2천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골심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만 15% 부과하고 다른 수입관리 및 통제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실수요업체와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이 맞으면 수출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KOTRA 청두 스포크가 현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품가격 및 비가격의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산의 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우리 업체의 시장개척 노력여하에 따라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은 광둥성 등 연해지역의 수출입 회사가 이를 대량 수입한 후 내륙으로 반입, 현지의 도매상 또는 실수요업체인 골판지박스 제조업체들에 판매하는 유통구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실수요 업체들이 한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 업체들은 골판지박스 제조업체들로 수입 권한이 없어 한국업체들이 중국으로 반입해 통관수속 등을 완료한 물건을 인수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한국업체들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골심지는 부피가 큰 상품이어서 연해 지역에서 사천지역까지 소요되는 내륙 운송비 절감과 적기공급이 내륙시장 진출에 관건이 되고 있다.

중국 최대 내수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내륙 시장을 개척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의 수출입회사 및 중개인 등을 확보해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수요업체들에 판매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골심지 가격수준은 중급 품질 기준으로 115g 정도의 제품은 통관 후 成都지역 인도조건의 가격이 대체로 2,600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이 가격대에 공급이 가능하면 시장개척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산 기계류 밀착시장서 대호평
말레이시아 기계박람회서 경쟁력 확인.

말레이시아에서 기계류를 비롯한 중간재·부품 등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계산업 저변이 취약한 말레이시아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지속적인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산업용 기계, 플랜트 및 설비 등을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제조업 성장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기계공업 및 부품공업 취약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기술집약 산업의 정책적 육성 방침에 따라 기계류 플랜트 수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기계류(운송장비 포함), 플랜트의 연간 수입규모는 약 242억달러

에 달해 총 수입시장규모 783억달러의 30.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 기계류의 현지시장 점유율은 96년 기준 5.8%로 현재 경쟁국인 일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낮으나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기계류 바이어들로부터 한국산 기계류에 대한 관심 및 구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본, 대만, 중국 및 독일산을 주로 구입해 오던 현지 바이어들에게 가격면에서 일본산보다 경쟁력이 있고 품질면에서는 대만, 중국산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산 기계류의 특성이 현지시장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말레이시아 최대 기계류 전문 박람회인 ITM '97(97년 6월 4~8일)에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산 기계류의 장점에 대해 미처 접해 보지 못했거나 품질 등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바이어들이 한국산 기계류의 우수성을 확인,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로컬 에이전트 계약 맺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총 372㎡의 전시면적에 들어선 한국관에는 36개 국내 중소기업이 출품한 블록성형기, CNC 선반, 연마기계, 포장기기, 운반기계, 진공성형기, 인쇄기계, 냉동기계, 프레스, 컴프레서, 공구류 등을 출품해 상담건수 1,821건, 계약액 940만달러, 상담액 7,080만달러의 실적을 거두는 등 최근 크게 향상된 한국산 기계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참가한 국내업체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시장을 처음 접해보거나 해외수출 경험이 일천한 업체들이었으나,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현지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기계류 수출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한편 기계류 수입과 관련해 현지 실수요자 및 수입상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기계류 판매이후에 공급자의 기술이전 및 A/S에 대한 보장여부인 점을 감안, 많은 업체들이 현지 에이전트 선정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해 박람회 기간중 S사(Oilless bearing), D사(Diamond blade), D사(Slitter line), S사(Air fitting)등은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선정, 출품 기계의 현장판매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확대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엔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기계류, 플랜트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이어서 우리 기계류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OTRA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키 위해 내년도 팔라렘푸르에 한국산 기계류 상설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관 참가업체는 물론 국내기계류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테트라팩, 캔 특성 가진 용기 개발 테트라 플라스마 아세프틱으로 판매

종이 용기 메이커인 일본 테트라팩(동경 치요다)은 단면에 8각형인 신형 음료용기의 판매를 시작한다.

스트로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마실 수 있

는 등 캔 용기에 가까운 특성을 갖게 하였다. 지금까지의 종이 용기는 유음료라든지 과즙 음료용이 중심이었지만, 커피음료 등으로도 용도가 확대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판매하는 '테트라 플라스마 아세프틱'은 종래의 직방체의 음료 용기에 비해 쥐기가 쉽다. 대형의 개구부를 채용, 직접 마실 수 있는 것 외에 글라스 등에 따르기 쉽도록 연구하였다. 상온 상태에서의 유통이 가능하며 종래의 충전 기계를 일부 개량하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내용량은 330ml, 1천ml, 등도 있다. 판매가격은 종래품에 비해 약간 비싸게 설정한다. 97년에는 신형 용기를 사용한 음료가 점두에 진열될 전망이다.

일, 커피 간이 포장화 추진 캔 용기서 필름으로 교체

커피 각사가 레귤러 커피의 간이 포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력이었던 캔 용기에서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알루미늄제의 필름 및 봉지로 교체, 쓰레기의 감량화로 연결하기 위해서이다. 기코망이라든지 아지노모토 제너랄푸즈(AFG)는 전용 라인의 신설도 계획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간이포장의 비율이 캔을 상회할 전망이다. 각사 모두 "환경에 배려한 포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일반가정으로의 침투를 꾀할 생각이다.

기코망이 올 가을에 발매한 '블루마운틴'과 '오리지널'은 배전 및 분쇄한 커피분말을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알루미늄을 접친 필름을 사용



하여 진공팩(VP)으로 만들었다. 태우더라도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아 일반 쓰레기로서 처분할 수 있는 것 외에 코스트도 캔보다 2할 정도 싸다고 한다.

97년 봄까지 다른 공장에도 VP 라인을 건설하여 97년도에는 생산량을 3할 늘린 2천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AGF는 96년 여름, VP 타입의 레귤러 커피를 단숨에 8품목 발매하였다. 모두 모회사인 미국 크래프트 푸즈의 캐나다 공장에 생산 위탁하고 있다. 수송비를 줄여 증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97년 봄까지 鈴鹿공장에 VP 라인을 설치하여 전량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한다.

최대기업인 UCC상도배는 10월, 봉지 타입 레귤러 커피 2품목을 발매하였다. 이것으로 전체 30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이 캔 용기 이외의 용기를 사용하게 된다.

전일본 커피협회에 의하면 95년도의 가정용 레귤러 커피 소비량은 전년도대비 27%증가로 호조. 그렇지만 종래의 캔용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로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불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VP라든지 종이 등 간이포장화에 박차를 가해질 것 같다.

일, 제일농재
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커트 야채 포장법

청과용 선도 유지제 메이커인 第一農材(훗카이도)는 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변색도 하지 않는 커트 야채의 팩 기술을 개발하였다. 냉장고에 보존하여 두면 사과는 20일, 감자는 1개월이 유지된다고 한다. 커트 야채 팩은 기술공

여처를 통하여 3월 수도권에서 판매한다.

이 기술은 껍질을 벗기고 자른 사과라든지 감자를 비타민 C라든지 E 등 천연성분을 함유한 액에 담구어 발효라든지 변색을 억제. 그 후에 동사가 개발한 탄산가스 흡착제(상품명 '화이트 C')와 함께 나일론폴리제의 봉지에 넣어 진공 포장한다. 맛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판매하는 상품은 토란, 부추, 마늘을 포함한 5종. 마늘은 탄산가스 흡착제의 효과로 냄새도 억제할 수 있다. 기술공여처인 야채 가공회사 마루이淺水상점이 판매한다. 초년도의 매상 목표는 1억엔.

플라스틱 포장자재 구매나서
고기술 품목 대한(大韓) 신규 거래희망

호주 멜버른에 본부를 두고 있는 포장용품 전문수입상 ICB사가 슈퍼마켓 등 유통산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포장자재의 對韓國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KOTRA멜버른 스포크를 접촉해왔다.

이 회사는 호주 멜버른의 본부 외에 암스테르담, 함부르크와 런던 그리고 도쿄에도 지부를 운영하면서 국제적인 포장용품 전문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해외구매 업무는 멜버른을 통해서만 수행하고 있어 다량의 판매물량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우리업체의 주목이 요청되고 있다. 이 회사 필립 윌더스 사장에 따르면 폴리티드로테이프, 쓰레기 봉투 및 재생용 종이봉투 등을 매월 약 15컨테이너씩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와 중국, 태국으로부터만 구매해 왔다고 한다. ☐